

중년기 부모 이해 수업이 중학생의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주연* · 이서연**†

*신가중학교 교사 ·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조교수

Effect of Middle-aged Parent Understanding Education for Middle School Students on Parent-Child Relationships

Jeong, Joo-Yeon* · Lee, Seo-Yeon**†

**Teacher, Singa Middle School*

***Assistant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teaching and learning plan for parental understanding classes for middle school students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classes o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by implementing the class.

The classes were conducted from July 5 to July 15, 2021, for the second graders of S middle school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in a total of 6 sessions, *i.e.*, 3 sessions per week for 2 weeks. The influence of classes on parent-child relationship was measured in terms of the understanding of the middle age, degrees of interaction, affection, and bond with parents. In order to analyze the impact of classes, pre- and post-class online surveys were conducted on 184 students who agreed to participate. For the collected quantitative data,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analysis, and pairwise t-tests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Ver 22.0 statistical program.

According to the results,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middle age increased an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students and their parents increased after the class. And the overall affection with the mother increased significantly. Also, students' bonds with both mother and father were significantly improved.

Based on these results,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home economics class were discussed to form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children and their parents.

Key words: 가정 교과(home economics class), 교수·학습과정안(teaching and learning curriculum),
부모 이해 수업(understanding parents), 부모-자녀 관계(parents-child relationship),
중년기 부모(middle-aged parents)

† 교신저자: Lee, Seo-Yeon, 77 Yongbong-ro, Buk-gu, Gwangju Metropolitan City, Department of Home Education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s College of Education (Education Convergence Hall No. 324), Republic of Korea
Tel: +82-62-530-2520, Fax: +82-62-530-2529, E-mail: sy0929@jnu.ac.kr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I. 서론

부모-자녀 관계는 한 개인이 경험하는 최초의 인간관계이며, 가족관계의 중심축을 구성한다.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심리·사회적 적응양식을 배우게 되고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며 성장한다(Choi, 2007). 안정된 부모-자녀 관계 형성은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며(Choi & Park, 2015; Kim & Park, 2017), 성인이 된 자녀의 부부관계나 본인의 부모-자녀 관계 문제까지 영향을 미친다(Park, Shin, Lee, Chun, & Lee, 2015). 특히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에서는 부모-자녀 관계 문제를 소아 청소년 시기에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위험요인으로 주목하였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은 학업 성취도가 높고, 인터넷이나 식사·의류 및 공간 등의 물질적 결핍은 낮은 수준이지만, 여가활동이나 친구 및 가족과의 행사 등 관계적 결핍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과중한 학업 부담, 친구들과 어울려 놀 기회 부족 등으로 마음 건강 또한 위험한 수준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국회입법조사처(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021)의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은 심리적 고통 및 정신질환의 증가로 인해 정신건강이 악화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아동·청소년의 수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아동·청소년의 자살률, 자해·자살 시도자 수는 증가 추세이다.

가족은 청소년의 신체 발달과 정신건강, 학교생활 적응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Choi & Kim, 2011; Kim & Kim, 2014). 특히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비행이나 심리 부적응, 우울 및 불안, 공격성,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Bae, Park, & Koh, 2012; Chun, 2018; Ha & Kim, 2017; Han, 2013; Kim, Seo, & Roh, 2019; Lee, 2019).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세대의 경우, 인간 발달 과정 중 중년기에 진입하였거나 중년기로의 전환기를 맞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 자녀를 둔 중년 성인의 외로움 증가는 자녀와의 관계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Francis, 1976). 일반적으로, 중년의 시기는 40-60세 정도의

연령대의 성인, 또는 청년과 노년의 중간 단계로 폭넓게 규정된다(Kang, Yang, & Choi, 2017). 성인 초기에는 배우자와 가정을 형성하고, 이후 자녀 출산 및 초기 양육의 과정을 지나면서 가족 구성원들 간에 정서적 거리가 가까워지는 경험을 한다(Crouter & Booth, 2003). 반면, 자녀들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그 결과 중년기에 속한 부모들은 자녀들로부터 정서적 거리 유지를 요구받게 된다(Crouter & Booth, 2003; White & Klein, 2008). 이처럼, 청소년 자녀를 둔 중년기의 부모들은 자녀 및 배우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가족 체계의 변화를 경험한다. 그러나 가족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심리적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울감과 외로움 같은 부정적 정서가 증가하거나 정신건강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Bekhet, Zauszniewski, & Nakhla, 2008).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부모로부터 돌봄과 양육을 받는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양방향적 상호작용을 맺는 관계로(Cho et al., 2018),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이해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이해도 필요하다. 청소년 자녀를 둔 중년 부모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역동의 변화는 가족체계이론(family systems theory)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가족체계이론에서 가족은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단위(unit) 또는 체계(system)로 보는 관점이다(White & Klein, 2008). 가족 체계 속에서 구성원들은 정서적 공동체를 이룸과 동시에 서로 쌍방향 혹은 다방향으로 정서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다. 부모-자녀 관계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보면, 부모가 자녀의 정서 발달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자녀와의 관계에 의해 부모도 정서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가정교과에서 ‘가족의 이해’ 단원은 가족과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내면화하고, 건강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Kang & Yu, 2018). Wang(2004)은 ‘가족의 이해’ 단원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수용하고 존중하며, 배려와 공감을 비롯한 여러 인성 요소를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한 가족관계를 위한 의사소통 방법을 익혀 존중, 진실성, 배려, 공정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부모-자녀 관계는 상호적 관계로,

부모 세대의 중년기 위기나 경험이 부모-자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중년기 부모 세대에 대한 청소년 자녀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은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의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부모 이해 수업을 “청소년기 자녀를 대상으로 중년기의 부모가 경험하는 다양한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수업”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부모 이해 수업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와 ‘가족의 이해’ 단원을 중심으로 중년기 부모 이해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한다.

둘째, 부모 이해 수업이 중년기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도, 어머니/아버지와의 상호작용 정도, 애정도 및 유대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는 중학생의 부모 이해 향상을 위해 교수·학습과정을 개발하고 수업에 적용하여 부모 이해 수업이 중학생의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대상인 청소년기와 중년기의 발달 특성, 중년기 부모 이해 수업과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1. 청소년기와 중년기의 발달

가.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나아가는 과도기이다. 이 시기에는 급격한 신체적 발달과 인지적 발달 및 사회·정서적 발달로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많은 변화 가운데

청소년기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대인관계에 대한 적응도 순조롭지 못하여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Sung, Park, & Kim, 2013).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발달 특성을 보이는 청소년 자녀들이 직면한 발달과업은 자아 정체감 형성 및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다(Soh, Ahn, Yang, & Kim, 2014). 또한, 자신의 목표 달성과 계획 등을 실현하기 위해 스트레스 속에서도 좌절과 극복을 경험하고 있다.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복합적인 관계 문제와 고유한 발달상의 문제는 청소년의 강한 충동성에 의해 중대한 부정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Joo & Choi, 2020). Park(2008)은 연구를 통해 사춘기가 시작되는 중학교 시기에는 급격한 신체 변화와 자아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더불어 불안정한 정서로 인해서 자살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최근 청소년들이 자신이 처한 여러 상황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자살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 연결되면서 사회적인 큰 쟁점이 되어가고 있다(Lee & Ji, 2018).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자들의 탐색 결과 가장 대표적인 위험요인은 부모-자녀 관계였다(Park, 2020). 선행연구에 의하면 역기능적 부모-자녀 관계는 청소년 우울·불안(Han, 2013), 학교폭력(Ha & Kim, 2017), 인터넷중독(Bae et al., 2012), 우울·공격성 및 신체화 증상(Chun, 2018) 등 청소년 정신건강에 지속적인 위험요인이 입증되었다. 또한, 긍정적 부모-자녀 관계는 청소년의 심리 부적응이나 정신건강 문제를 완화시키고 적응력을 증진시키는 자원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Kim et al., 2019). 또한, Kim과 Kim(2014)도 청소년의 신체 발달과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환경 중 하나는 가족이라고 하였으며, 가족은 청소년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 Kim, 2011). 청소년들은 급격한 신체적·인지적 발달 및 정서적·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응과 다양한 발달과업으로 인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은 가족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가족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중년기의 발달 특성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세대의 경우, 인간 발달 과정 중 중년기에 진입하였거나 중년기로의 전환기를 맞이하였을 가

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 대상자의 어머니 평균연령은 45세, 아버지 평균연령은 48세로 중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 연구자는 이러한 중년기를 자녀 독립이 시작되는 40세경부터 노년기가 시작되는 60세 이전까지로 보고 있다(Koh, 2003; Levinson, Darrow, Klein, & Levinson, 1978).

중년기는 내적 환경인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변화와 외적 환경인 가족생활, 사회생활, 직업 생활 등에 의해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시기이다(Kim & Park, 2021). 중년기에는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며(Han & Lee, 2012), 노화 과정으로 인해 이전 시기보다 심리적 및 신체적 변화가 크게 나타나므로 이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Soh et al., 2014).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고지에서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자신의 위치에 대하여 평가하고 돌아보며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계획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시기이다(Yang, 2011). 대부분 사람은 중년기에 안정감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또 다른 다수는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한다(Oh, 2005). 그러므로 중년기는 인생의 주요 전환기로 위기의 시기이자 성숙을 도모할 수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들이 심리·정신적으로 성숙하고 발달과업을 잘 이루어 부모-자녀의 정신건강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Sung & Lee, 2019).

중년기로 접어들면서 많은 성인이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orkin, Rook, & Lu, 2002). 선행연구들에서 외로움이 우울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로움과 우울 사이에 통계적으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orkin et al., 2002; Weeks, Michela, Peplau, & Bragg, 1980). 중년을 대상으로 한 Kim과 Ki(2019)의 연구는 외로움에 중요한 변수로 자녀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자녀에게 정서적 및 행동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더욱 심하게 중년의 위기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oon & Oh, 2002). 특히 우리나라 중년은 자녀의 교육, 진학과 관련해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Im & Cho, 1993; Lee, 2003). 서구와는 달리 우리나라 중년기 부모는 자녀의 학업적 성공에서 성취감을 느끼므로 입시 문제와 같은 자녀의 진학과 관련한 어려움은 중년기 부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Ryff, Schmutte, & Lee, 1996).

2. 중년기 부모 이해 수업과 부모-자녀 관계

가. 중년기 부모 이해 수업과 부모 이해 요소

부모-자녀 관계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세대 간의 관계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 구성원 다수는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갈등이 현재 심각한 편이며 앞으로도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고,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세대 간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Hwang, Byen, & Chun, 2016). Oh와 Ryu(2016)는 연구를 통해 다른 세대에 대한 공감은 세대 간 이해와 소통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세대 구성원의 주관적인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부모-자녀 관계도 다양한 세대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세대 간 서로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Yoo와 Park(2005)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5회기의 부모-자녀 관계향상 프로그램에서 중년기 부모 이해, 분노 조절, 듣기, 말하기 등의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그 결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가 도출되었다. Song(2010)의 연구에서는 세대통합교육 이후 노인 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과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가족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상대 세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는 친밀한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세대 통합을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학교 수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Lee, 2020). 그리고 연구 대상자의 67.1%의 청소년들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세대공동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Oh, 2017). 이상의 결과는 서로 다른 두 세대인 청소년기 자녀와 중년기 부모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타 세대에 대한 상호 이해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부모를 이해한다는 것은 조망 수용 능력의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조망 수용이란 사고의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대인관계 안에서 타인의 입장, 감정, 인지 등을 추론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Jeong, 2019; Shin, Oh, Ryu, & Kim, 2020). Selman(1971)은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이 발달한 아동은 감정이입 능력을 갖추게 되고, 동정심이나 문제 해결 능력 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의 향상은 타인의 상태 및 감정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Van 외(2014)는 종단분석을 통해 청소년기에도 조망 수용 능력이 발달하며, 이는 청소년기 인지발달의 결과임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조망 수용 능력과 감정이입을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에 대입하여 보면, 개인에게 부모는 가족 내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타인이므로, 조망 수용 능력이 향상되어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곧 부모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Lee와 Lee(2003)는 아동이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더 잘 이해할수록 타인의 감정이나 경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조망 수용 능력이 높아지며, 조망 수용 능력은 감정이입을 강화한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타인에 대한 이해는 Beme(1958)의 교류분석이론에도 제시되고 있다. 교류분석 이론에 따르면 자기 긍정-타인 긍정(I'm OK-You're OK)의 자세는 의식적인 사고나 활동에 기초한 것으로 자신도 가치 있고 타인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바람직한 자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 이해 수업을 통해 청소년의 조망 수용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자기 이해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적인 지식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감각과 기능, 사고를 통해 획득되는 것으로, 개인의 심리적 차원과 물리적 차원 및 개인 전체에 대한 앎을 말한다(Lee, 2014).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상대방과의 관계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타인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해 준다(Wang, 2016). 따라서 자기 이해를 위한 활동은 타인과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Lee, 2014). 자신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수용하듯이 상대방에 대한 긍정과 수용도 같은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기에 가능하다고 본다(Park, Kim, & Bang, 2016). 진정한 자기수용이란 자신의 모습 그대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인정할 때 가능하다. 이러한 자기수용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수용할 때 '자신과 타인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타인의 입장을 취하여 타인의 생각을 추론하고 지각하는 인지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Lee & Kim, 2001). 즉, 자기 이해란 자신에 대한 생각, 감정, 태도 등 자신 전체에 대한 앎을 뜻하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자신과 타인 및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심리상태로 상대방과의 관계 형성에 기본적인 요소이다. 종합하여 보면, 청소년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 및 자기 이해는

부모와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조망 수용으로 연결되어 부모-자녀 관계 향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 이해 요소를 지식, 자기 이해, 조망 수용, 실천으로 설정하고 부모 이해 수업에 적용하였다. 부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속해 있는 공동체인 가족의 의미와 특성 및 부모와 자녀의 발달 특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둘째, 이런 지식적인 앎을 토대로 부모를 이해하기 위해 자녀는 자신에 대한 자기 이해가 필요하다. 셋째,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조망 수용 능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부모 이해 수업에서 조망 수용이란 자녀가 부모의 상황과 감정 및 인지에 대해 추론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가정교과는 실천중심의 교과이므로 가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가족관계 안에서 학생들이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는 실천 요소를 부모 이해의 네 번째 요소로 설정하였다.

나. 부모-자녀 관계 척도

한편 부모-자녀 관계는 상호적 관계로, 부모 세대의 중년기 위기나 경험이 부모-자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중년기 부모 세대에 대한 청소년 자녀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은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의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자녀들이 부모의 양육 태도를 어떻게 인지하느냐가 실제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년기 부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하다. 2015 개정 중학교 기술·가정 교육 과정에는 '가족의 이해' 단원에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내용이 편성되어 있고, '생애 설계' 단원에 중년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중년기 부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인식을 변화시키기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녀를 대상으로 중년기의 다양한 발달 특성,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 부모와의 소통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중년기 부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청소년기는 사춘기를 거치면서 독립성 및 자율성이 발달하여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멀어지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상대적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덜 강조되어온 측면이 있다(Choi & Choi, 2016). 하지만 청소년기에도 여전히 부모-자녀

관계의 영향을 받으며, 부모와 맺은 애착의 인지적-정서적 차원이 그대로 지속하여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침이 입증되고 있다(Ahn & Lee, 2009). Kim, Nam과 Choi(2010)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바람직하고 건강한 관계 속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가치관이 변화하는 혼란의 시기인 청소년기를 무사히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Kim과 Ki(2019)의 연구 결과는 중년의 부모가 느낄 수 있는 외로움 및 우울과 같은 정서의 문제는 자녀와의 관계로부터 올 수 있으며, 부모-자녀 관계가 자녀의 정서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부모의 정서적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줬다. Choi(2012)는 부모와의 관계가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으며, 부모가 자녀를 합리적으로 대하고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수록 자녀는 삶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는 부모의 애정적 양육 행동이 다른 양육 행동 유형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Kim, Park, & Ahn, 2014)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Choi(2005)는 유대감을 중요시하는 한국에서 부모-자녀 간의 친밀한 유대관계는 자녀의 안정적인 심리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자아 분화가 증가하고 자아 분화가 증가하면 심리사회 적응을 더 잘하여 불안, 대인 예민성 및 우울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Koh와 Lim(2010)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친밀감과 존경심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자녀 관계에서 친밀감과 존경심이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Roh & Seo, 2021). 그러나 Kim 외(2010)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는 학업 지원 및 경제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심리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일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분명하며(Choi & Choi, 2016), 부모의 정서적 건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Kim & Ki, 2019).

자녀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행동은 자녀들의 심리적 상황이나 행동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므로 부모의 실제 행동과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Kim, 2004; Kim, Park, & Kim, 2015; Sohn, 2001). 자녀가 지각한 양육 태도와 부모의 실제 양육 태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본 Medinuss(1965)는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녀의 자이수용에 따라 다르게 지각됨을 발견하였다. 또한,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가 부모가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보다 자녀의 정서적 적응에 더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Lee, Jang, Choi, & Hur, 2008). Heo(2000)도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양육 행동 자체보다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 방식이 자녀의 정서적, 행동적인 측면에 실질적인 중요성을 갖는다고 보았으며, Lee(2016)도 부모의 양육 방식을 자녀가 현재 어떻게 지각하고 있느냐가 자녀가 겪고 있는 감정과 행동, 문제들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Kang(2004)은 부모의 양육 태도를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자녀에게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와 자녀는 평생 동안 밀접하게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부모-자녀 관계 향상을 위해서는 부모 교육과 더불어 자녀가 부모님의 양육 태도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 ‘가족의 이해’ 단원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중학생의 부모 이해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안을 개발하기 위해 ADDIE 모형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ADDIE 모형은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실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의 5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1.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수업의 내용을 구성하고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2015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가족의 이해’ 수업에 해당하는 내용과 성취기준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자녀 세대 간에 민주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가족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가족 관계에서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 연습함으로써 자신들의 삶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의 중년기 부모 이해를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설계하였다. 우선 수업 주제와 수업 목표를 설정하고, 차시별 학습 주제와 학습 목표를 정한 후 학습 주제에 맞는 내용 요소 및 학생활동을 계획하였다. 수업주제와 수업 목표, 차시별 학습 목표는 <Table 2>와 같이 연계성 있게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2. 설계

설계단계에서는 분석단계를 통해 나온 결과를 종합하여 중

Table 1. Research procedure for parent understanding class according to ADDIE model

단계	연구 절차
분석(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개정 중학교 기술·가정과 교육과정 ‘가족의 이해’ 내용 분석 -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설계(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학습과정안 설계 - 수업의 주제 및 수업의 목표 설정 - 차시별 학습 주제와 학습목표 설정 - 차시별 학습 주제에 따른 내용 요소 및 학생활동 계획
개발(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학습과정안 개발 - 학습 주제 및 내용 요소에 따른 수업 활동 구성 - 총 6차시의 교수·학습과정안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 - 예비 수업 실시 - 피드백을 통한 교수·학습과정안 수정 및 보완 - 전문가 검토 후 수정 및 보완
실행(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년기 부모 이해 수업 실행
평가(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이해 수업이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중년기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도, 부모와의 상호작용 정도, 애정도, 유대감에 대한 설문 실시

Table 2. Class overview for understanding middle-aged parents

대단원	I. 가족의 이해	중단원	2. 가족관계와 갈등관리
소단원	2-1. 건강한 가족관계		
성취 기준	[9기가01-05] 다양한 가족관계의 유형과 특징을 파악하고, 양성평등하고 세대 간의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방안을 탐색하여 실천한다.		
수업 주제	부모-자녀 관계 개선을 위한 중학생의 중년기 부모 이해 수업		
수업 목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년기 부모 이해 수업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차시별 학습 목표	1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가족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년기의 다양한 변화를 알고 부모님의 상황을 공감할 수 있다. 	
	3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4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 카드를 이용하여 다양한 감정표현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사례를 통해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찾고 발표할 수 있다. 	
	5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다양한 방법을 말할 수 있다. • 가족을 위한 마음 돌봄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6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들을 위한 마음 돌봄 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 가족 마음 돌봄 상자 만들기에 대한 소감을 표현할 수 있다. 	

3. 개발

부모 이해 수업을 위한 6차시 교수·학습과정안과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2020년 12월 광주광역시에 있는 S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차 고사가 끝난 후 예비 수업을 시행하였다. 수업 후 학생들과 교사들의 피드백 결과를 반영하여 교수·학습과정안을 수정하였다. 그리고 가정과 교육과정 및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평균 경력 16년 이상의 가정과 교사 12인에게 교수·학습과정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받았다. 교수·학습과정안 및 학습지에 대한 설문과 3회의 화상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목표에 맞고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하도록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지도교수의 검토를 통해 최종 교수·학습과정안을 완성하였다.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학생용 학습 활동지(6개), 학습 과제지(1개), 파워포인트 자료(6개), 동영상 자료(11개), 동화책(2권), 실습재료, 감정 카드 등을 활용한 6차시의 교수·학습과정안을 개발하였다. 중년기 부모 이해 수업의 차시별 수업 활동은 <Table 3>과 같다.

4. 실행

가. 연구 대상 및 시기

광주광역시에 있는 S 중학교 2학년 남녀 학생 전체 340명에게 중년기 부모 이해 수업을 시행했으며, 본 연구에 동의한 18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사전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수업 실행 후 2021년 7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사후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총 184명 중 어머니에 대한 문항에서 8명이 ‘해당 없음’으로 응답하여 176명이 설문 참여했으며, 아버지에 대한 문항은 6명이 ‘해당 없음’으로 응답하여 178명이 설문 참여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적정 표본 수 산정을 위하여 G-Power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개발된 교수·학습과정안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사후 반복 측정을 통해 분석했다. 반복 측정을 통한 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 산정 및 검정력 계산에 대해 입증된 공식이 없는 예도 있는데, 이런 경우 컴퓨터 시뮬

Table 3. Class activities for understanding middle-aged parents by session

차시	학습 주제	부모 이해 요소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자료
1	가족의 의미와 특성	지식 자기 이해	액션러닝	• PPT, 학생 활동지 • 가족 동영상(3'26") • 폭넓은 끈(예:폼띠 등)
2	중년기의 발달 특성	지식 자기 이해 조망 수용	협동학습	• PPT, 학생 활동지, 전지, 싸인펜, 메직 • 연예인 사진 • 싸이의 ‘아버지’ 노래(3'29")
3	중년기 부모마음 이해	자기 이해 조망 수용	액션러닝	• PPT, 학생 활동지 • 아기 울음 동영상(27") • 자녀인터뷰 동영상(4'40") • 부모인터뷰 동영상(3'31") • 그림책: 언젠까지나 너를 사랑해 • 잔소리 동영상(1'40"), 2(1'20")
4	부모-자녀 가까워지기 1단계 : 감정 이해하기	자기 이해 조망 수용	액션러닝	• PPT, 학생 활동지 • 감정 카드 7세트 • 모녀갈등 동영상(2'42")
5	부모-자녀 가까워지기 2단계 : 마음 돌봄 방법	자기 이해 조망 수용	액션러닝	• PPT, 학생 활동지, 포스트잇, 색연필 • 아이유의 ‘마음’ 노래(5'30") • 나비 포옹법 동영상(1'40")
6	부모-자녀 가까워지기 3단계 : ‘우리 가족 마음 돌봄 상자’ 만들기	자기 이해 조망 수용 실천	실습법	• PPT, 학생 활동지, 과제 출력물 • 그림책: 펍크대왕 퍼시 • 마음 돌봄 상자 만들기 재료 : 미니 상자, 밴드, 사탕, 비타민, 격려 글귀 라벨지 출력물, 스티커, 네임펜, 색연필, 싸인펜 등 • 양희은 ‘엄마가 딸에게’ 노래(4'30"),

레이션을 시행하여 표본 수 및 검정력 계산을 시행하게 된다 (Kang, 2015).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양측검정을 사용하였고, 효과의 크기는 0.43,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로 설정한 결과 적절한 연구 대상자의 샘플 크기는 73명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고 사전·사후 설문문에 모두 참여한 학생이 184명이므로 연구에 필요한 충분한 대상자가 확보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을 시행하기 전에 연구자가 속한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연구 계획에 대한 심의와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1040198-21503-HR-061-02). 연구과제와 내용을 연구 참여자에게 설명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보호자와 연구 참여자의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설문문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음을 안내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은 KSDC DB(<https://www.ksdcdb.kr/main.do>)에서 제작한 후 본 연구에 동의한 18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나. 실행방법

본 연구를 위한 수업은 주당 3시간씩 2주 동안 등교수업으로 총 6차시로 진행하였으며,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S 중학교 2학년 기술·가정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 2명과 연구자가 함께 수업을 실행하였다. 3명의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업 실행 전에 수업을 개발한 이유와 목적 및 기대하는 효과와 전체 수업의 흐름에 대해 3번의 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안내하고 내용을 공유하였다. 각 차시의 수업 활동 자료와 PPT를 바탕으로 12학년에서 일관성 있는 수업이 진행되도록 시간 흐름에 따른 수업 진행 방법 및 교사의 설명 내용을 포함한 교사용 수업자료를 별도로 제작하여 12학급에서 3명의 교사가 일관성 있게 수업을 실행하였다.

5. 평가

가. 측정 도구

부모-자녀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전·사후 설문 조사

를 통해 중년기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도, 부모와의 상호작용 정도, 애정도 및 유대감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설문 문항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모르는 용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S 중학교 1학년 학생 11명을 대상으로 2021년 6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안면 타당도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응석’, ‘측은한’, ‘절대적인’, ‘권위적인’이라는 단어를 쉽게 풀어 문항을 수정한 후 국문과 교수 1인의 검토를 받았다.

1) 이해도

중년기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해 세 가지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나는 중년기의 외적(신체적) 변화에 대해 알고 있다, 나는 중년기의 내적(심리·정서적) 변화에 대해 알고 있다, 나는 중년기의 역할(가정이나 직장 등) 변화에 대해 알고 있다’이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모른다(1점)’에서 ‘매우 잘 알고 있다(5점)’까지 해당하는 점수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2) 상호작용 정도

상호작용이란 한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를 바람직하게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은 부모와 자녀 간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Lee & Song, 2017). Russell과 Russell (1987)에 의하면 부모-자녀 간의 기능적 상호작용의 본질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변화되는데 전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언어적 의사소통이 더욱 보편적인 상호작용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의 정도를 부모와의 대화 정도 및 갈등 정도로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와의 대화 정도는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1점)’에서 ‘자주 대화 한다(10점)’까지 해당하는 점수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둘째, 부모와의 갈등의 정도도 마찬가지로 ‘전혀 갈등이 없다(1점)’에서 ‘매우 갈등이 많다(10점)’까지 해당하는 점수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3) 애정도

부모와의 애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Roberts와 Bengtson (1993)이 개발한 Perceived Parent-Child Affection Scale을 번안

하여 사용한 Kim(201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에 대하여 응답자가 지각한 부모와의 애정을 바탕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다. 이 척도의 문항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귀하는 인생의 현시점에서 어머니/아버지와 얼마나 가깝다고 느끼니까?’, ‘귀하는 어머니/아버지를 얼마나 잘 이해합니까?’ 등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방식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느끼는 애정 정도에 대해 ‘아주 조금(1점)’에서 ‘매우 많이(6점)’까지 표기하는 6점 Likert 척도이며, 일상생활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에 해당하는 분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 ‘해당 없음’에 체크 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의 애정적 결속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와의 애정도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사전 .89, 사후 .87이며, 아버지와의 애정도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사전 .91, 사후 .91로 모두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4) 유대감

부모와의 유대감을 알아보기 위해 Choi(2007)의 ‘한국형 부모-자녀 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나 양육 태도의 측정은 서구에서 개발된 양육 태도나 부모-자녀 관계 척도보다는 한국의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는 특수한 측면들을 고려할 때보다 타당성을 가질 것이다(Koh & Lim, 2010).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20문항, 아버지 20문항 전부를 사용하며 질문지는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표기하는 5점 Likert 척도이다. 응답한 결과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에서 유대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 20개 문항은 4가지의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친밀영역(7개 문항), 헌신영역(6개 문항), 존경영역(4개 문항), 엄격영역(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 도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친밀영역은 친밀한 행동이나 애정 표현을 하는 것, 부모와 자녀 간의 언어적으로 주고받는 교류방식,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태도나 행동에 대한 자녀의 지각이다. 헌신영역은 부모가 자녀에게 양육자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애너지를 다하는 것에 대한 자녀의 지각이다. 존경 영역은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통해 가치관과 인생관에 영향을 미치며 우러러 보는 것에 대한 자녀의 지각이다. 엄격영역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수직적 관계에서 부모의 힘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자녀를 주도적으로 훈육하는 것에 대한 자녀의 지각을 의미한다(Jeong & Lee, 2017). 부모-자녀 관계 척도에서 어머니에 대한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사전 .95, 사후 .93이고, 아버지 에 대한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사전 .95, 사후 .94로 모두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나.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중년기 부모 이해 수업이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양적 자료를 SPSS Ver 2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 정도, 애정도, 유대감에 대한 사전·사후 설문 결과에 대한 평균, 빈도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 정도, 애정도, 유대감에 대한 사전·사후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대응 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교수·학습과정안 개발

가정과 교육은 가정생활에 대한 지식, 능력, 가치판단력을 함양하여 실천적 문제 해결을 통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현재와 미래의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MOE], 2015). 이에 ‘다양한 가족 관계의 유형과 특징을 파악하고, 양성평등하고 세대간의 민주적인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방안을 탐색하여 실천한다(MOE, 2015).’는 성취기준을 이루기 위한 부모 이해 수업으로 총 6차시의 교수·학습과정안을 개발하였다.

1차시는 가족의 의미와 특성을 생각해 보는 수업이다. 동기유발을 위한 스토리텔링 후 학생 활동지에 가족이란 무엇인지 정의해 보고 그 이유를 적은 후 발표하며 가족의 의미를 정리한다.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특성에 대해 학생들에게 묻고 답변을 정리한 후 희망하는 학생 3-4명을 앞으로 초대하고 끈(태권도 품 띠 등)으로 연결한 다음 한 사람씩 몸을 크게 흔들 어 보거나 걸어보도록 한다. 한 사람만 움직여도 가족 전체가

다 흔들리거나 원하지 않아도 따라가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한 후 소감을 듣는다. 가족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특별한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가족의 특성을 학생 활동지에 정리한다. 이어서 가족과 관련한 영상을 시청한 후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담고 싶은 가치나 자신이 원하는 가족의 모습을 단어로 표현해 본다. 마무리 활동으로 원하는 가족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적어보고 발표한다. 구체적인 교수·학습과정은 <Table 4>와 같다.

2차시의 주제는 중년기의 발달 특성으로 중년기의 외적 변화, 내적 변화 및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 변화에 대해 배운다.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인간의 발달 단계에 맞는 일러스트 자료를 제공하고, 중년기는 이미지만 제공하여 중년기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자연스럽게 자신들은 청소년기, 부모님들은 중년기에 속해 있음을 인식하도록 한다. 그리고 사춘기가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는 중간단계이듯이 중년기는 성인기에서 노년기로 가는 중간 단계이며, 몸과 마음의 변화로 인해 사춘기에 혼란과 불안 등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처럼 중년기도 비슷한 변화의 시기라는 것을 설명한다. 학생들은 모듈별로 중년기에 나타나는 내적변화, 외적변화, 고민 및 중년기의 관심사에 대해 의논하고 정리하여 발표한다. 구체적인 교수·학습과정은 <Table 5>와 같다.

3차시의 학습 주제는 중년기 부모 마음 이해로 자녀에 대한 부모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먼저 동기유발을 위해 아기가 울고 있는 영상 2개를 보여준 후 왜 울고 있는지 학생들에게 질문하여 아기의 울음소리로 아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가장 잘 알아차리는 사람이 부모님임을 떠올리도록 한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자녀와 부모 인터뷰 영상을 보며 부모에게 자녀는 어떤 존재이며, 부모로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순간과 자녀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는지를 생각해 보고 공유한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로버트 먼치, 안토니 루이스)’라는 그림책을 교사와 학생이 번갈아 가며 읽으며 부모와 자녀의 입장에서 들려주고 싶은 말과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활동지에 기록한다. 마무리 활동으로 학생들이 평소에 많이 듣는 부모님 잔소리가 들어있는 영상 2개를 본 후 잔소리를 들을 때 자녀의 마음과 잔소리 속에 담긴 부모님의 속마음은 무엇인지 학생 활동지에 기록하고 공유한다. 구체적인 교수·학습과정은 <Table 6>과 같다.

4차시에서는 부모-자녀 가까워지기 1단계로 감정을 이해하는 활동을 한다. 사춘기와 중년기는 인생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므로 혼란과 불안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시기를 잘 보내고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 상대방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이해하

Table 4. Teaching and learning plan #1

주제	가족의 의미와 특성	차시	1
학습목표	1. 가족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2. 가족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학습자료	교수·학습 PPT, 학생활동지, 영상자료		
학습단계	교수·학습 활동		부모이해요소
도입 (10분)	▷ 인사 및 출석 체크 ▷ 동기유발 : 나에게 소중한 9가지(활동 및 결과 발표) ▷ 학습목표 제시		자기이해
전개 (30분)	1. 가족의 의미 : 가족에 대한 생각 표현하기 2. 가족 공동체의 특징 : 가족이 다른 공동체와 다른 특성은 무엇일까요? 3. 희망하는 학생 3-4명의 지원을 받아 가족의 특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간단한 활동을 한 후 가족의 특성을 정리 4. 가족안에 담고 싶은 가치 : 영상을 보고 각자 가족 안에 담고 싶은 단어를 기록해 보기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2tD_yJ-vAe)		지식 자기이해
정리 및 차시예고 (5분)	▷ 마무리 활동 : 원하는 가족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적어보고 발표하기 ▷ 차시예고		

Table 5. Teaching and learning plan #2

주제	중년기의 발달 특성	차시	2
학습목표	중년기의 다양한 변화를 알고 부모님들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다.		
학습자료	교수·학습 PPT, 학생활동지, 영상자료		
학습단계	교수·학습 활동		부모이해요소
도입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및 출석 체크 ▷ 동기유발 : 인간발달 일러스트를 보고 중년기 찾기 ▷ 학습목표 제시 		지식
전개 (35분)	1. 사춘기의 특징 : 나는 사춘기 일까?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확인하기		자기이해
	2. 중년기의 특징 (1) 성년기-중년기-노년기를 표현하는 남녀 연예인 사진을 보고 중년기의 발달 특성 찾기 (2) 모듬별로 전지에 간단하게 사람의 모양을 그린 후 중년기의 외적변화, 내적변화, 고된 등을 전지에 기록 (PPT를 통해 예시를 보여주고 모듬별로 작성하도록 순회하며 지도)		지식
	(3) 모듬별로 질관에 게시한 후 발표 (4) 모듬별 발표가 끝나면 교사는 PPT를 통해 중년기의 특성을 정리하기		지식
	3. 중년의 관심사 중년기에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인지 모듬별로 의논해 보고 이유를 적기. 활동지에 작성 후 모듬별로 발표하기		지식
4. 중년기 아빠의 삶 살펴보기 : 싸이의 '아버지' 뮤직비디오를 보고 인상 깊었던 장면과 이유 기록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xJXCkV2JUQw)			조망수용
정리 및 차시예고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리활동 : 사춘기와 중년기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응원메세지를 적고 발표하기 ▷ 차시예고 		

Table 6. Teaching and learning plan #3

주제	중년기 부모 마음 이해	차시	3
학습목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학습자료	교수·학습 PPT, 학생활동지, 영상자료		
학습단계	교수·학습 활동		부모이해요소
도입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및 출석 체크 ▷ 동기유발 :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보기 ▷ 학습목표 제시하기 		조망수용
전개 (30분)	1. 부모님들의 속마음 알아보기 : 부모님들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는 영상을 보고 아래질문에 답하기 ① 부모에게 자녀는 어떤 존재인가요? ② 부모로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순간은? ③ 부모는 자녀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상처받을까?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JD9rAvRvgnk)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YNJslQrlVfo)		조망수용
	2. 책 속에서 만나는 부모님 마음 :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동화책을 교사와 학생이 번갈아 읽은 후 다음 질문에 답하기) 내가 부모가 된다면 매일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부모님으로부터 오랫동안 쪽 듣고 싶은 말은?		조망수용 자기이해
정리 및 차시예고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무리 활동 : 잔소리 속에 담긴 부모님 속마음 찾기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UiiLbRjfsj0)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pOT4Dg7R8sY) ① 자주 하시는 잔소리는? ②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자녀는 어떤 마음일까? ③ 잔소리에 담긴 부모님의 속마음은? 		조망수용 자기이해
	▷ 차시예고		

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4차시에서는 감정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들을 모둠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히고 엄마와 딸의 갈등 사례를 보면서 두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찾아본다. 구체적인 교수·학습과정은 <Table 7>과 같다.

5차시 수업의 주제는 부모-자녀 가까워지기 2단계로 마음 돌봄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지난 시간에 배운 다양한 감정을 바탕으로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마음을 돌봐주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배우고 부모님을 위한 마음 돌봄 실천 방법을 찾아보는 수업이다. 상대방의 감정에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는 것은 관계 형성에 매우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구체적인 교수·학습과정은 <Table 8>과 같다.

6차시의 주제는 부모-자녀 가까워지기 3단계로 “우리 가족 마음 돌봄 상자” 만들기이다. 학생들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마음 돌봄 방법을 기억하면서 가족들의 마음을 응원하고 지지 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하는 기회를 갖는다. 먼저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옆 친구에게 “오늘 마음(기분)이 어때?” 라고 물어보고 대답을 들은 후 “왜 그런 기분이 들었어?”라고 다시 물어본다. 서로 번갈아가며 묻고 대답하는 활동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경험과 상대방이

내 마음을 물어봐 주고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 자녀와 부모가 가정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그리고 ‘핑크대왕 퍼시(Colin West)’라는 그림책을 통해 학생들은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들을 ‘감사의 안경’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가족들을 위한 마음 돌봄 상자를 만든다. 실습이 마무리 되면 ‘우리 가족 마음 돌봄 상자 만들기’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과제를 설명한다. ‘마음 돌봄 실천하기’를 자신과 가족, 친구들에게 직접 실행해보고 기록하여 제출하면 기술·가정 생활기록부 교과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기록해 준다는 것을 안내한다. 구체적인 교수·학습과정은 <Table 9>와 같다.

2. 수업 적용 결과

가. 연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이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S중학교 2학년 전체 340명 중 본 연구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고 사전·사후 설문에 모두 참여한 학생 184명이다(Table 7). 이 중 남학생은 83명(45.11%), 여학생은 101명(54.89%)으로 여학생의 참여

Table 7. Teaching and learning plan #4

주제	부모-자녀 가까워지기 1단계 - 감정 이해하기	차시	4
학습목표	1. 감정 카드를 이용하여 다양한 감정표현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2. 사례를 통해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찾고 발표할 수 있다.		
학습자료	교수·학습 PPT, 학생활동지, 영상자료, 감정카드 7세트		
학습단계	교수·학습 활동		부모이해요소
도입 (5분)	▷ 인사 및 출석 체크 ▷ 동기유발 : 감정표현 단어 ▷ 학습목표 제시하기		자기이해
전개 (35분)	▷ 감정표현 단어가 정리된 학생활동지 배부 ▷ 모둠별로 감정카드 배부 및 모둠활동 1. 감정표현 빙고놀이 2. 감정 맞추기: 주인공은 1명씩 교대로 주인공이 감정카드를 뽑으면 그 카드를 보지 않고 다른 친구들이 주는 힌트를 통해 감정단어를 맞추기. 3. 감정 나누기 : 교사가 먼저 2-3개의 감정카드를 선택한 후 교사의 감정을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함. 학생들은 각자 최근 자신의 마음과 가장 가까운 카드를 찾고,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나눔 4. 모녀갈등 영상을 보고 엄마와 딸의 감정 찾기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I7HRJQNfUg)		자기이해 조망수용
정리 및 차시예고 (5분)	▷ 마무리 활동 :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감정 표현 ▷ 차시예고		

Table 8. Teaching and learning plan #5

주제	부모-자녀 가까워 지기 2단계 - 마음 돌봄 방법	차시	5
학습목표	1.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다양한 방법을 말할 수 있다. 2. 가족을 위한 마음 돌봄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학습자료	교수·학습 PPT, 학생활동지, 영상자료, 네임펜, 포스트 잇		
학습단계	교수·학습 활동		부모이해요소
도입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및 출석 체크 ▷ 동기유발 : 밴드를 붙인 교사의 손가락을 보여준 후 “선생님은 손가락에 왜 밴드를 붙였을까요?” ▷ 학습목표 제시 		
전개 (35분)	1. 내 마음 알아차리기	자기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 요즘 여러분 마음은 어떤가요? - 그림을 보고 ‘나의 마음’에 해당하는 아이 고르기, 내 마음을 나타내는 색으로 색칠하고 감정 단어 쓰고 모둠원과 나눔 - 각자 가족 마음도 그림에 다른 색으로 색칠하고 감정 써보면서 가족 마음을 생각해 보는 기회제공. 	조망수용	
정리 및 차시예고 (5분)	2. 내 마음 돌봄	자기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느꼈던 힘든 감정과 그때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돌봤는지 포스트잇에 적은 후 모둠에서 나누기, 모둠원 중 한 명이 모아서 칠판에 붙이기 - 교사는 학생들의 마음 돌봄 방법을 소개해 주고 추가로 다양한 마음 돌봄 방법을 안내한 후 나비포용법을 학생들과 함께 실습하기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iMio0t5WHI) 		
	3. 가족 마음 돌봄 찾기	조망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에 한 번씩 가족 마음 물어보기 - 안아주기, 긍정적인 말 해주기, 맛있는거 챙겨주기, 경청하기, 부모님께 상장 만들어 드리기 - 감사표현하기 : 감사문자전송, 감사카드 쓰기, 감사이벤트 계획하기, 영상편지 만들기 - 집안일 함께 하기 : 식사준비, 청소, 설거지, 빨래 개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무리 활동 : 오늘 배운 마음 돌봄 방법 중에서 실천해 보고 싶은 방법에 ☆표 해주세요. ▷ 차시예고 		

Table 9. Teaching and learning plan #6

주제	부모-자녀 가까워지기 3단계 - “우리 가족 마음 돌봄 상자” 만들기	차시	6
학습목표	1. 가족들을 위한 마음 돌봄 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2. 가족 마음 돌봄 상자 만들기에 대한 소감을 표현할 수 있다.		
학습자료	교수·학습 PPT, 학생활동지, 영상자료, 실습재료		
학습단계	교수·학습 활동		부모이해요소
도입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및 출석 체크 ▷ 동기유발 : 옆 친구에게 서로 요즘 마음이 어떤지 물어보고 자신의 마음 이야기하기 ▷ 학습목표 제시하기 		
전개 (30분)	1. 가족들이 가정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 찾아보기	조망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처 : 국어정책통계 연감(2015, 국립국어원) 2. 당연한 것들을 감사로 바라보는 방법 : 그림책을 PPT로 보여주며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기 - ‘핑크대왕 펄서’ 이야기를 듣고 느낀 소감 발표하기 -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들’을 ‘감사의 안경’으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자기이해	
정리 및 차시예고 (5분)	3. 실습 : 우리가족 마음 돌봄 상자 만들기	조망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음악 [엄마가 딸에게(양희은)]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8rWuQI9jsY) - 재료 : 미니상자 1, 밴드 2, 사탕 4, 비타민, 격려 글귀(감사, 위로, 응원 등) 라벨지 출력물, 꾸미기 도구(네임펜, 색연필, 싸인펜 등) - 가족 4명에게 줄 수 있는 분량의 재료를 제공하고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감사와 위로, 격려의 메시지를 적고 카드와 상자를 장식함(필요한 재료 추가로 지급). 	자기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무리 활동 : 가족 돌봄 상자 만들기 소감 나누기 ▷ 과제제시 : 마음 돌봄 실천하기 		

비율이 약 10% 정도 높았다. 어머니의 연령은 평균 45세였고, 아버지의 연령은 평균 48세였다. 가족의 구조를 보면 2세대 가족은 174명(94.57%)이고, 3세대 가족은 10명(5.43%)이다. 가족 경제원을 보면 맞벌이 비중이 66.30%로 외벌이의 약 2배 정도를 차지했다. 생활 수준은 ‘중’ 이상으로 대답한 학생이 93.48%였다.

가족 중에서 주된 대화 상대를 어머니라고 답한 학생은 44.72%이고 아버지라고 답한 학생은 23.58%이며 형제자매는 29.54%를 차지했다. 학생들은 주로 어머니와 소통을 많이 하고 있으며 형제자매 다음으로 아버지와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 대상자에 대한 응답에서 어머니는 46.39%, 아버지는 23.58%, 형제자매는 28.18%로 대화 상대에서와 같이 어머니에 대해 가장 친밀하게 느끼고 형제자매 다음으로 아버지에게 대해 친밀하게 여기고 있었다. 가정 분위기는 화목하다고 답한 학생이 74.46%이며 화목하지 않다고 대답한 학생은 3.26%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정분위기가 화목하거나 보통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10>과 같다.

나. 중년기 부모 이해 수업이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

1) 이해도 변화

중년기의 변화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8.94,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적 변화($t=7.71, p<.001$), 내적 변화($t=8.36, p<.001$), 역할 변화($t=8.53, p<.001$) 모두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중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중년기의 여러 가지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으며, 중년기 부모 이해 수업이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중년기 부모 이해 수업 이후 중년기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11>에 제시된 바와 같다.

Table 10. Socio-economic status and famili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84)

구분		N	비율 (%)
성별	남학생	83	45.11
	여학생	101	54.89
가족 구조	2세대	174	94.57
	3세대	10	5.43
가족 경제원	외벌이	62	33.70
	맞벌이	122	66.30
사회 인구학적 특성	상	34	18.48
	중상	63	34.24
	중	75	40.76
	중하	12	6.52
부모님 연령	평균 (SD)	45세 (4.03)	
	어머니 아버지	48세 (4.26)	
대화 상대	어머니	165	44.72
	아버지	87	23.58
	조부모님	4	1.08
	형제자매	109	29.54
	기타	4	1.08
가족 특성	어머니	135	46.39
	아버지	67	23.02
	외할머니	3	1.03
	형제자매	82	28.18
	기타	4	1.37
가정 분위기	매우 화목하다	59	32.07
	대체로 화목하다	78	42.39
	보통이다	41	22.28
	대체로 화목하지 않다	6	3.26
	전혀 화목하지 않다	0	0.00

Table 11. Changes in understanding of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in middle age

구분	N	사전		사후		t	
		M	SD	M	SD		
이해도	외적변화	184	3.23	1.07	4.03	.81	-7.71***
	내적변화	184	3.21	1.08	4.06	.80	-8.36***
	역할변화	184	3.15	1.08	4.02	.82	-8.53***
전체	184	3.20	1.08	4.04	.81	-8.94***	

*** $p<.001$

2) 상호작용 정도 변화

중년기 부모 이해 수업 이후 부모님과과의 상호작용 정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1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부모님과과의 대화 정도를 살펴보면, 어머니와의 대화 정도는 사전 설문 결과 8.57로 매우 높은 값이 나왔으며 사후에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외는 달리 아버지와의 대화는 사전 설문 결과 6.90에서 사후 설문 결과 7.37로 나타나 부모 이해 교육 이후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t=2.01, p<.05$). 이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에서도 나타났듯이 평소에 주로 어머니와 대화를 많이 하므로 수업을 통해 어머니와의 대화 정도에는 변화가 없으나, 아버지의 경우 수업을 통해 대화가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서 수업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Yoo와 Park (200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부모님과과의 갈등 정도의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부모 이해 수업 이후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와의 갈등 정도는 사전 설문 결과 4.39점에서 사후 설문 결과 4.96점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t=2.14, p<.05$), 아버지와와의 갈등 정도는 사전 설문 결과 3.53점에서 사후 설문

결과 4.39점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t=3.62, p<.001$). 사전검사에서 갈등이 적은 편이었고 수업 후에도 갈등이 중간값보다 낮게 나왔으므로 갈등이 심각한 편이 아니라고 여겨지며, 관계에서 갈등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반드시 부정적이거나 문제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3) 애정도 변화

연구 대상자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정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1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분석 결과 어머니와의 애정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으며($t=1.99, p<.05$), 모든 문항에서 사전 설문보다 사후 설문의 경우 평균값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4번 문항 ‘학생은 어머니를 얼마나 잘 이해합니까?’라는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t=2.39, p<.05$). 이를 통해 중년기 부모 이해 수업이 어머니에 대한 애정도를 높이고 특히 자녀가 어머니를 이해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에 대한 애정도 변화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4문항 모두에서 사전 설문의 평균값보다 사후 설문의 평균값이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3번 문항

Table 12. Changes in interaction between parent and child

구분	N	사전		사후		t	
		M	SD	M	SD		
대화정도	어머니와의 대화	176	8.57	1.42	8.55	1.62	.11
	아버지와의 대화	178	6.90	2.14	7.37	2.25	-2.01*
갈등정도	어머니와의 갈등	176	4.39	2.27	4.96	2.49	-2.14*
	아버지와의 갈등	178	3.53	1.91	4.39	2.45	-3.62***

* $p<.05$, *** $p<.001$

Table 13. Changes in affection with mother/father

구분	문항	N	어머니					아버지				
			사전		사후		t	사전		사후		t
			M	SD	M	SD		M	SD	M	SD	
1	176	4.99	1.07	5.16	.93	-1.58	178	4.46	1.22	4.64	1.27	-1.38
2	176	4.92	1.12	5.02	1.07	-.81	178	4.58	1.21	4.74	1.24	-1.21
3	176	4.30	1.36	4.59	1.32	-1.96	178	4.11	1.43	4.47	1.31	-2.49*
4	176	4.36	1.17	4.66	1.15	-2.39*	178	4.16	1.21	4.38	1.27	-1.67
평균	176	4.64	1.03	4.86	.96	-1.99*	178	4.33	1.12	4.56	1.13	-1.93

* $p<.05$

‘학생은 아버지가 학생을 얼마나 잘 이해한다고 느끼니까?’라는 항목에서 유의미한 변화($t=-2.49, p<.05$)가 나타난 것을 볼 때 이번 수업이 아버지에 대한 학생의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4) 유대감 변화

부모 이해 수업 이후 부모님과과의 유대감 변화를 살펴본 결과(Table 14), 어머니와의 전반적 유대감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t=2.83, p<.01$). 친밀, 헌신, 존경, 엄격의 4가지 영역 중 친밀영역($t=2.17, p<.05$)과 존경영역($t=2.16, p<.05$)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고, 헌신영역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나 사전·사후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생들은 어머니에 대해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는 분이라는 인식이 가장 컸으며, 중년기 부모 이해 수업을 통해 어머니에 대해 좀 더 친밀하게 느끼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와의 전반적 유대감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t=-3.21, p<.01$). 친밀, 헌신, 존경, 엄격의 4가지 영역 중 친밀영역($t=3.45, p<.001$)과 존경영역($t=2.33, p<.05$)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고, 헌신영역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나 사전·사후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생들은 아버지에 대해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는 분이라는 인식이 가장 컸으며, 중년기 부모 이해 수업을 통해 아버지에 대해 좀 더 친밀하게 느끼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양육 태도를 자녀가 어떻

게 수용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 중년기 부모 이해 교육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중학생의 부모 이해 향상을 위해 중년기 부모 이해 수업을 개발하고 수업에 적용하여 부모 이해 수업이 중학생의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ADDIE 모형에 의거하여 교수·학습과정안을 개발하고, 실행 및 평가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 부모 이해 수업 이후 중년기 발달 특성에 대한 자녀들이 이해도가 증가하였고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 간 상호작용이 증가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년기의 외적 변화, 내적 변화, 역할 변화에 대한 중학생의 이해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수업 이후 아버지와의 대화 정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어머니와의 대화 정도는 사전·사후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지만, 아버지와의 대화 정도는 교육 전에는 낮았다가 교육 후에는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 형성과 유지에 있어 아버지와의 대화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청소년 자녀와 아버지와의 대화 빈도와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모와의 갈등 정도를 살펴보면 수업 이후 부모와의 갈등이 증가

Table 14. Changes in feeling of bonding

영역	구분	어머니					아버지						
		N	사전		사후		t	N	사전		사후		t
			M	SD	M	SD			M	SD	M	SD	
친밀	176	3.77	.94	3.99	.84	-2.17*	178	3.51	.99	3.86	.91	-3.45***	
헌신	176	4.18	.76	4.31	.73	-1.63	178	4.19	.86	4.29	.82	-1.15	
존경	176	4.15	.77	4.32	.70	-2.16*	178	4.00	.90	4.21	.82	-2.33*	
엄격	176	3.92	1.02	3.69	1.26	1.97	178	3.86	1.03	3.69	1.20	1.46	
평균	176	3.71	.61	3.90	.60	-2.83**	178	3.59	.68	3.82	.68	-3.21**	

* $p<.05$, ** $p<.01$, *** $p<.001$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검사에서 갈등이 적은 편이었고 수업 후에도 갈등이 중간값보다 낮게 나왔으므로 갈등이 심각한 편이 아니라고 여겨지며, 관계에서 갈등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반드시 부정적이거나 문제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부모와의 애정도를 측정된 결과 어머니에 대한 전반적인 애정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애정도에 관한 총 4개의 문항 중 ‘학생은 어머니를 얼마나 잘 이해합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 점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정도는 4개의 문항 모두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증가하였지만, ‘아버지가 학생을 얼마나 잘 이해한다고 느낍니까?’라는 문항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셋째, 부모와의 유대감을 측정된 결과 어머니, 아버지와의 전반적 유대감이 모두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친밀, 헌신, 존경, 엄격의 4가지 영역 중 친밀과 존경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변화가 나타났고, 헌신 영역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나 사전·사후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생들은 부모님들에 대해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는 분이라는 인식이 가장 컸으며, 중년기 부모 이해 수업을 통해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좀 더 친밀하게 느끼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모 이해 수업 이후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유대감은 모두 향상되었으나, 그 정도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유대감은 이미 높은 수준에서 조금 더 향상되었으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대감은 교육 전에는 낮았다가 교육 후에는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 자녀가 상대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를 더 소원하게 느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어머니에 대한 청소년 자녀들의 이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의 결과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특정 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시행한 후 수업의 영향을 살펴본 단일집단 전후 설계로 도출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연구 설계가 가지는 제한점으로 인해 중학생의 중년기 부모 이해 수업의 효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 자녀가 중년기 부모를 이해하는 수업이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

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모의 양육 태도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부모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를 바탕으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의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위해서는 자녀가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기술·가정 교육과정에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버지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기대되는 부모의 역할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므로 아버지의 역할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성별을 뛰어넘어 남성과 여성 모두 부모 역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아버지 고유의 역할을 탐색하여 이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기술·가정 교과 가족 단원에서 부모-자녀 관계 향상을 위한 수업자료로 활용되어 부모-자녀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 이해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Ahn, H. W., & Lee, J. Y. (2009).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and parental monitor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stress and problem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0(1), 77-88.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uthor.
- Bae, S. M., Park, J. K., & Koh, Y. S. (2012).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internet addiction: Dual mediating effects of psychological, behavioral problem

- and internet use motivation.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9(3), 529-544.
- Bekhet, A. K., Zauszniewski, J. A., & Nakhla, W. E. (2008). Loneliness: A concept analysis. *Nursing Forum*, 43(4), 207-213.
- Berne, E. (1958). Transactional analysis: A new and effective method of group therapy.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12(4), 735-743.
- Cho, S. Y., Lee, M. R., Choi, H. Y., Park, J. J., Song, H. L., Kwon, Y. H., & Park, J. A. (2018). *Parent education*. Seoul: SinJung.
- Choi, I. J. (2005). The influence of cultural uniquenes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on adolescent's mental health: Parent-adolescent affective bonding.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7(4), 1059-1076.
- Choi, I. J. (2007).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parent-child relationship instrument.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5(2), 45-56.
- Choi, I. S. (2012).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with parents, peers, and teacher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 An examin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self resilience and gender differences. *The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3(3), 105-129.
- Choi, J. W., & Kim, H. J. (2011). Domestic violence affects the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Mediating effects of self-concep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1), 73-103.
- Choi, S. J., & Choi, S. E. (2016). Influence of peer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on the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4(3), 307-319.
- Choi, Y. S., & Park, U. I. (2015).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on peer relationships and mediating effec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control ability.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26(2), 275-286.
- Chun, S. Y. (2018). Parental over-expectation and over-control and adolescent' somatization: The effects of mediation on adolescent' depression and aggression. *Korean Journal of Child Psychotherapy*, 13(1), 55-67.
- Crouter, A. C., & Booth, A. (2003). *Children's influence on family dynamics: The neglected side of family relationship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Francis, G. M. (1976). Loneliness: Measuring the abstract.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13(3), 153-160.
- Ha, E. H., & Kim, H. E. (2017). Differences in type of school violence among adolescents with school violence according to parental monitoring and callous-unemotional traits level. *Korean Journal of Child Psychotherapy*, 12(1), 67-88.
- Han, J. I. (2013).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and family health on depression for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Child Psychotherapy*, 8(2), 89-117.
- Han, K. H., & Lee, J. H. (2012). *When you talk about middle age*. Gyeonggi: Kyomunsa.
- Heo, M. Y. (2000).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hwa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 Hwang, Y. J., Byen, J. H., & Chun, H. J. (2016). A study on the support plan for the improvement of generation integration capacity of youth.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Research Report*, 1-396.
- Im, J. B., & Cho, H. J. (1993). The factor structure of urban family life events and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1(4), 115-132.
- Jeong, O. B. (2019). *Understanding child development* (3th ed.). Seoul: Hakjisa.
- Jeong, S. J., & Lee, Y. S. (2017). Effect of the father-child relationship on social problem solving cognized by middle school students: Mediating effects of social isolation. *The Korean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5(1), 73-94.
- Joo, H. J., & Choi, S. E. (2020). The effects of storytelling family classes using picture books on the resilience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of adolescents: Focusing on the core concepts of 'relationship' and 'safety' in middle school technology · home economic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2(1), 167-184.
- Kang, H. (2015). Sample size determination for repeated measures design using G Power software. *Anesthesia and Pain Medicine*, 10(1), 6-15.
- Kang, H. J. (2004). *A study on the effect of childrens' perception regarding parents' methods of rearing on their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eo University, Chungnam, Korea.
- Kang, J. M., & Yu, N. S. (2018). Development of technology & home economics teaching-learning plans using ARCS

- strategies to improve character for middle school students: Focusing on the unit of 'understanding familie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0(1), 29-42.
- Kang, M. A., Yang, Y. Y., & Choi, N. Y. (2017). A concept analysis of middle-aged men's crise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10), 721-729.
- Kim, D. Y., Park, K. J., & Kim, H. W. (2015).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depressive symptoms in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6(2), 120-128.
- Kim, E. H., Seo, J. E., & Roh, C. R. (2019). A longitudinal study of causal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parenteral supervision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21(2), 97-121.
- Kim, J. E. (2015). *Typology of adult attachment across close relationships and the association with depression and affection for parents among young adul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H., & Park, U. I. (2017). The effects of child-teacher relationship training program based on CPRT child care teacher's sensitivity, efficacy of child care and teaching and prevention of teacher burnout. *Korean Journal of Child Psychotherapy*, 12(3), 107-129.
- Kim, J. R., & Kim, H. S. (2014). The influence of family violence and school violence on suicidal impulses in adolescent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4(2), 310-333.
- Kim, J. Y., Nam, S. I., & Choi, S. A. (2010). The effects of parental discipline styles on adolescent hostility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5(3), 121-147.
- Kim, S. H. (2004).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 similarity of father and mother's attitude and teacher's support on child's behaviou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Kyungnam, Korea.
- Kim, S. K., Park, M. K., & Ahn, J. S. (2014). The influence of school adjustment on life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6(2), 163-182.
- Kim, T. H., & Ki, P. D. (2019). Effect of family relationships on depression in middle-aged parents with teenage childre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loneliness. *Faily and Culture*, 31(3), 1-33.
- Kim, Y. S., & Park, J. W. (2021). The difference of marital satisfaction and communica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love of middle-aged married person.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sychotherapy*, 13(1), 1-23.
- Koh, K. S. (2003).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crisis of middle-aged 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Koh, S. H., & Lim, S. T. (2010). Relations between Korea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school adjustment. *The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1(1), 45-64.
- Lee, H. G., & Ji, J. C. (2018). Relationship among physical activity, self-esteem,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f youth.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27(4), 389-398.
- Lee, H. K., & Kim, J. H. (2001). Effects of role acceptance on empath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3(1), 15-29.
- Lee, J. H. (2020). The effect of participation in intergenerational programs on adolescent's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34(3), 209-225.
- Lee, J. W. (2019). *Effects of parents relationships on juvenile delinquency behavior - Mediated effect of self-contr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unsan University, Jeonbuk, Korea.
- Lee, J. Y. (2016). Mediating effect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style and emotion dysregulat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8(1), 217-244.
- Lee, M. S. (2003). Social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middle-aged employed m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37(3), 25-56.
- Lee, S. M., & Kim, G. K. (2021). The study on suicide and physical activity on Korea youth.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12(1), 505-518.
- Lee, S. Y. (2014). *A humanistic framework for social studies edu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Lee, S. Y., & Song, J. Y. (2017).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cept

-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cademic · emotional support and career maturity: The longitudinal changes over 4 years. *Studies on Korean Youth*, 28(4), 77-112.
- Lee, Y. K., Jang, H., Choi, J. Y., & Hur, T. K. (2008). Congruence between parents' and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communication style: The impacts on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3), 389-404.
- Lee, Y. S., & Lee, S. E. (2003). Effects of emotional education program on young children's perspective takings. *Journal of Human Life Sciences*, 6, 17-40.
- Levinson, D. J., Darrow, C. N., Klein, E. B., & Levinson, M. (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New York: Random House.
- Medinnus, G. R. (1965). Adolescent self-acceptance and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2), 150-154.
- Ministry of Education (2015). *A practical arts(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information curriculum* (No. 2015-74). Chungbuk: Author. Retrieved from <http://ncic.re.kr/mobile.dwn.ogf.inventoryList.do>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ess release (2019). *Expand national responsibility for children*. Retrieved from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878>
- Moon, K. J., & Oh, K. J.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behaviors and early adolescents' depression and anxiety.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1), 29-43.
-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021). *Mental health statu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NARS Analysis of Pending Issue No. 200). Seoul: Author.
- Oh, H. Y., & Ryu, J. H. (2016). The impacts of empathy on subjective well-being: With mediating effects of interactive reactivity toward different age groups. *Journal of Speech, Media & Communication Association*, 15(1), 44-82.
- Oh, T. K. (2005). Christian educational task for overcoming midlife crisis.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10, 63-85.
- Oh, Y. Y. (2017). *Adolescents' perceptions and needs analysis regarding inter-generational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 Park, E. O. (2008). The influencing factors on suicide attempt among adolescents in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3), 465-473.
- Park, J. A. (2020). Moderating effect of high-risk adolescent's ego-resiliency on relation between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and behavior problems. *Korean Journal of Child Psychotherapy*, 15(1), 97-115.
- Park, J. A., Shin, Y. L., Lee, M. R., Chun, Y. J., & Lee, K. S. (2015). Standardization study for the Korean version of parenting relationship questionnaire-childre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3(2), 169-177.
- Park, S. H., Kim, J. E., & Bang, B. R. (2016). A study on the effects to the communication capability and the accommodation of other person's perspective for the self understanding, the self accommodation and the self communication - Centered on the university students in Gyeonggi and Seoul.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7), 410-422.
- Roberts, R. E. L., & Bengtson, V. L. (1993). Relationships with parents,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young adulthood: A further examination of identity theor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6(4), 263-277.
- Roh, S. H., & Seo, H. R. (2021). The effects of self-esteem on life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Focused on parent-child relationship.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12(3), 1357-1372.
- Russell, G., & Russell, A. (1987). Mother-child relationship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58(6), 1573-1585.
- Ryff, C. D., Schmutte, P. S., & Lee, Y. H. (1996). How children turn out: Implications for parental self-evaluation. In C. D. Ryff & M. M. Seltzer (Eds.), *The Parental Experience in Midlife* (pp. 383-422). Chicago: Chicago Press.
- Selman, R. L. (1971). The relation of role taking to the development of moral judgment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42(1), 79-91.
- Shin, H. S., Oh, S. A., Ryu, J. H., & Kim, S. M. (2020). *Educational psychology 2*. Seoul: Hakgisa.
- Soh, S. Y., Ahn, J. Y., Yang, D. H., & Kim, K. M. (2014). Parental and adolescent perceptions of transitions during early adolescence: With a focus on the FGI of adolescents and par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2(1), 247-279.

- Sohn, K. S. (2001). *A study on the parenting behavior and moral judgment and aggression perceived by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Song, H. Y. (2010). Generation integrated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and the effectiveness for the middle school student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Education*, 3, 69-88.
- Sorkin, D., Rook, K. S., & Lu, J. L. (2002). Loneliness, lack of emotional support, lack of companionship, and the likelihood of having a heart condition in an elderly sample. *Analysis of Behavioral Medicine*, 24(4), 290-298.
- Sung, K. M., & Lee, S. M. (2019). Adolescent parenting stress and posttraumatic growth of middle aged wome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5), 267-277.
- Sung, S. O., Park, M. D., & Kim, Y. H. (2013).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on correlation between school stress and adjustment of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8), 49-70.
- Van der Graaff, J., Branje, S., De Wied, M., Hawk, S., Van Lier, P., & Meeus, W. (2014). Perspective taking and empathic concern in adolescence: Gender differences in developmental changes. *Developmental Psychology*, 50(3), 881-888.
- Wang, J. Y. (2016). *Study on the effect of implementing the music program that applies the features of the MBTI preference trend on self-understand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University, Seoul, Korea.
- Wang, S. S. (2004). The systematization of personality education contents in the 7th curriculum for home economic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6(2), 13-26.
- Weeks, D. G., Michela, J. L., Peplau, L. A., & Bragg, M. E. (1980). Relation between loneliness and depression: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6), 1238-1244.
- White, J. M., & Klein, D. M. (2008). *Family theories*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 Yang, W. K. (2011). *Influences of family resilience on the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stability of middle-aged men and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eui University, Busan, Korea.
- Yoo, J. Y., & Park, J. Y. (2005).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parent-child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 for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7(1), 69-8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학생의 부모 이해 향상을 위해 교수·학습과정안을 개발하고 수업에 적용하여 부모 이해 수업이 중학생의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21년 7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광주광역시에 있는 S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기술·가정 수업 시간에 주당 3시간씩 2주 동안 총 6차시에 걸쳐 부모 이해 수업을 시행하였다. 수업이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중년 부모에 대한 이해, 부모와의 상호작용 정도, 부모와의 애정도 및 유대감으로 측정하였다. 수업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 동의한 18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양적 자료는 SPSS Ver 2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 통계, 신뢰도 분석, 대응 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중년기 부모 이해 수업 이후 중년기 발달 특성에 대한 자녀들의 이해도가 증가하였고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 간 상호작용 정도도 증가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전반적인 애정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어머니, 아버지와의 전반적 유대감이 모두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의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위해서는 기술·가정 교과와 가족 단위에 자녀가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논문접수일자: 2022년 8월 31일, 논문심사일자: 2022년 9월 13일, 게재확정일자: 2022년 9월 13일